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이 현 주**

-
- | | |
|------------------------|----------------------|
| I. 머리말 | IV. 수양동우회 회원의 신간회 참여 |
| II. 수양동우회의 초기조직과 노선 | V. 맺음말 |
| III. 신간회 창립과 수양동우회의 변화 | |
-

I. 머리말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현실을 조명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하물며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일제하 新幹會로 대표되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단지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내는 데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신간회운동이 추구했던 이념은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추구했던 당면의 과제가 민족해방에서 민족통일로 바뀌었을 뿐 양자는 역사적으로 연속된 동전의 양면에 다름 아니다.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37-BA0019).

** 국가보훈처 연구관·인하대학교 강사 한국근대사

3·1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자 민족운동전선 내부에서는 향후 운동의 방법 및 전략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제적으로 1917년 러시아혁명의 성공, 제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의 민주주의운동의 고양, 중국 민족혁명의 진전 등과 함께 사회주의사상이 도입되어 민족운동의 유력한 이론으로 정착했다.

그 결과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의 민족운동은 크게 부르주아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분화는 3·1 운동 이후 재편되는 민족 내부의 계급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민족운동의 최고 목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의 전선 통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갔던 것이다. 1927년 2월에 민족·사회주의 등 민족운동의 여러 세력들이 이에 부응하여 반제국주의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결성한 것이 신간회였다.

그러나 일제하 국내의 모든 운동세력이 신간회에 집결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민족주의세력은 좌파로 간주되는 천도교 구파와 조선일보계가 주력으로 참여했을 뿐, 민족주의우파로 분류되는 세력들은 처음에 신간회 참여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신간회 창립 초기에는 그것이 좌우합작의 통일전선조직을 지향했기 때문에 신간회의 또 다른 축인 사회주의에 공명하는 민족주의세력만이 참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신간회의 조직이 확대되고 운동이 발전하면서 참여에 유보적이었던 민족주의우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수양)동우회였다.

그러므로 일제하 (수양 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에 대한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수양 동우회는 물론 신간회를 둘러싼 민족주의우파의 민족통일전선론을 살피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¹⁾

1)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서중석, 「한말 일제침략하의 자본주의근대화론의 성격」, 『한국근현대 민족문제 연구』, 지식산업사(1989);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홍업구락부 연구」, 『韓國史論』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92); 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1994); 趙培原, 「修養同友會·同友會 研究」,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8);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인(2001); 「신간회운동기 ‘基督主義’ 사회운동론의 대두와 基督信友會」, 『한국근현대사연구』 16, 한울(2001); 김명구,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사상」,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II. 수양동우회의 초기조직과 노선

1. 수양동우회의 조직

(수양)동우회는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에 의해 조직된 興土團의 국내지부로서 ‘민족성의 개조’와 ‘인격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수양단체로 출발했다. 흥사단은 ‘민족 前途大業의 기초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務實·力行·忠義·勇敢의 정신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신체를 단련하여 기력을 튼튼하게 하며 각자 전문지식 또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을 기른다는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창립 이후 흥사단은 단우의 모집에 주력하면서 실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北美實業會社와 興業會社 등을 설립하였다.

3·1운동 뒤 안창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상해지역은 물론 남북만주와 일본 및 노령 연해주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흥사단 遠東委員部를 조직했다. 흥사단의 조직확대운동은 1920년 9월에 상해에 원동위원부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북경과 남경, 만주 등지에서 펼쳐던 이상촌 건설운동과 표리를 이루면서 계속되었다.

1920년경 흥사단 원동위원부는 흥사단운동은 국외보다도 다수의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내조직 결성을 모색하였다.²⁾ 이에 따라 金鍾憲은 1920년 5월 일본 동경에 건너가 白寬洙와 俞億兼 등을 단원으로 포섭한 뒤 이듬해 5월에 국내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1921년 3월에 李光洙와 朴賢煥이 조선에 들어왔다. 이후 김종덕과 이광수, 박현환은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흥사단 국내지부의 결성을 준비하였다.

상해에서 국내로 돌아온 이광수는 바로 동아일보사에 입사하고 이듬해 5월에 이 신문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했다. 뒤에 그는 阿部充家를 통해 9월 30일에 조선 총독과 면담하고 「수양동맹안」이라는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세간에서는 이를 “청년의 독립지향 의지를 감쇄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양동맹회는 출범 때부터 국내 민족진영으로부터 의혹의 눈총을 받았다.³⁾

2) 「증인 신문조사: 안창호」, 京高特秘 제373 호의 7(1937.6.29), 『抗日運動關係 島山安昌浩資料集 (I)』(이하 ‘도산안창호자료집’), 국회도서관(1997), 223-224 쪽

1922년 2월 12일에 김종덕·박현환·이광수 등은 수양동맹회를 발기했다⁴⁾ 이외에 흥사단원 郭龍周, 金允鎭, 李恒鎭과 국내에서 새로 입단한 安昌基, 金起縵, 金允經, 元達鎬, 洪思容 등이 수양동맹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기회에서 이광수는 수양동맹회에 대해 “수양동맹회 규약은 흥사단 약법 중 흥사단을 수양동맹회로, 충의를 신의로 고치고 ‘우리 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을 ‘조선 신문화 건설의 기초를 준비함’으로 고쳤지만 내용은 흥사단 약법과 동일하여 조선독립의 기초를 준비하고 준비가 완성된 후 일거에 혁명을 단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⁵⁾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평양에서도 대성학교 출신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同友俱樂部가 조직되었다. 1922년 봄부터 대성학교 교사였던 金東元을 중심으로 같은 학교 출신의 金性業·趙明植·李濟學·金永胤·金光信·金滢植 등은 몇 차례 회합을 갖고 조선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1922년 7월 중순 이들은 한때 대성학교를 다녔던 金炳淵을 참가시켜 발기회를 열고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동우구락부를 결성했다. 동우구락부는 1923년 1월 16일에 창립대회를 열고 “무실역행의 주의로 회원간에 互相 친목하며 호상 협조하며 進하여 사회의 문화 향상을 圖하기로 목적함”이라는 규약을 발표했다⁶⁾ 동우구락부는 1910년대의 비밀결사운동이나 3·1운동에 참여했던 평양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운동과 일제 지배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즉각 독립의 노선에서 벗어나 실력양성론·준비론으로 정치적 입장을 바꾼 사례였다⁷⁾

안창호는 수양동맹회와 유사한 성격의 동우구락부가 조직되자 두 단체의 합동을 적극 권유했다. 그는 1923년 3월에 이광수를 비밀리에 북경으로 불러들여 “평양의 동우구락부는 수양동맹회와 같이 흥사단과 동일한 주의, 목적의 결사이므로 합동하여 결사의 확대·강화를 도모하라”고 ‘지시 했다⁸⁾ 그런데 안창호가 지시한

3) “本會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을 조선인에게 고상한 德과 필요한 知識과 健康과 富를 享受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절대로 時事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주의이다”(『齋藤實에게 보낸 阿部充家 서한』, 『齋藤實文書』(1921.11.29)).

4) 「수양동맹회 발기회 기록」, 중거 제56호, 『도산안창호자료집』(II), 162~163쪽.

5) 「동우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7735호(1937.10.28), 『도산안창호자료집 I』, 332쪽.

6) 『東亞日報』 1923. 6. 22.

7)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28(1995) 참조.

양자의 합동은 창립후의 발전이 지지부진했던 수양동맹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안창호를 만나고 돌아온 이광수는 1923년 4월에 평양에서 김동원을 만나 정식으로 수양동맹회와 동우구락부의 합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때의 합동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수양동맹회가 주로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도덕적 인격 수련과 지식의 공유 등을 주창하였던 반면 동우구락부는 평양출신의 대성학교 교사 및 학생으로 안창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대부분 상공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실력양성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⁹⁾

1925년 9월 경 수양동맹회는 동우구락부와의 합동을 다시 추진, 이광수가 다시 평양에 가 김동원을 만나 양자의 합동에 대한 찬동을 이끌어냈다. 1925년 10월 10일과 11일에 수양동맹회와 동우구락부는 합동회의를 열고 ① 규약은 수양동맹회의 규약을 채용한다, ② 동우구락부 회원 총 23명은 그대로 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동우구락부 회금 3백원은 입회금으로 처리한다, ④ 중앙본부는 서울에 두고 평양에는 지회를 둔다는 합동의 원칙을 결정했다.¹⁰⁾ 수양동맹회가 동우구락부를 흡수하는 형태였다.

동우구락부는 1925년 11월 총회를 열어 합동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흥사단의 국내조직은 ‘수양동우회’로 단일화되었고, 수양동우회는 평안도와 황해도 및 서울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¹¹⁾ 민족주의 우파진영의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2. 수양동우회의 노선

수양동우회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조선 신문화 건설의 기초를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활동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양과 수양동우회의 이론을 선전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뒤에 신간회가 대중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민중계몽의 방식과는 다른 것인데, 수양동우회가 스스로를 정치와 시사에 간여하지 않

8) 「동우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7735호(1937.10.28), 『도산안창호자료집 1』, 338 쪽

9) 趙培原, 앞의 글, 9쪽

10) 흥사단사편찬위원회, 『흥사단50년사』, 대성문화사(1964), 53 쪽

11) 수양동우회 회원의 출신배경에 대해서는, 金相泰, 「1920-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1), 23~29쪽 및 趙培原, 앞의 글, 11~18쪽

는 ‘수양’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회원 대상의 교양강연은 규약상 의무사항의 실천 및 월례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월례회에서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흥사단의 이념을 교육하고 자연과학, 보건위생, 국제정세 등을 토론했다. 초기에는 주로 김창세, 이광수, 김윤경 등 수양동맹회 창립 때부터의 회원들이 강연을 담당했고 1927년 신간회가 창립된 뒤에는 이용설, 정인파, 조병옥, 이대위, 주요한, 장리욱 등 수양동우회 출범을 전후해 활동을 시작한 인물들이 주로 담당했다. 강연자의 변화는 강연내용의 변화로 이어져 전자가 주로 인격 완성과 단결 훈련 등을 강조한 반면, 후자의 인물들은 국제정세나 수양동우회의 규약개정 문제 등을 주로 다루었다.¹²⁾

초기 수양동우회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은 기관지 발행이었다. 잡지는 어떤 사업보다도 한층 효과적으로 수양동우회의 활동성과와 노선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수양동우회는 1926년 1월 7일의 議事部 회의에서 잡지를 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서대문 이광수의 집에 東光社를 설립하고 주요한의 책임 하에 1926년 5월 20일 『東光』창간호를 발행했다.¹³⁾

수양동우회는 『東光』창간호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우리는 남보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말하는 도덕이란 결코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하는 어떤 덕목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도덕의 근본이 되는 원리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정신은 결국 관습문제이기 때문에 虛偽, 懶怠, 巧詐反復, 因循怯懦, 利己, 猜忌嫉妬 등의 악습관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務實, 力行, 信義, 勇氣, 社會奉仕, 親愛寬恕 등의 좋은 관습을 건설하려면 각 개인이 무서운 결심과 노력을 가지고 상당한 장시간을 刻苦勉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⁴⁾

여기서는 조선민족의 ‘도덕적 결함’을 열거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도덕적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이광수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이미

12) 趙培原, 같은 글, 24쪽.

13) 주요한기념사업회편, 『주요한문집 새벽』 I(1982), 47쪽

14) 『東光』제1호(1926.5), 「무엇보다도」.

「대구에서」(1916), 「농촌계발」(1916) 등에도 보였던 ‘민족개조’의 사상을 「중추계급과 사회」, 「민족개조론」 등에서 수양동맹회의 이념으로 제창하였고¹⁵⁾ 이것을 위의 글에서 반복하였다.

3·1운동 이후 급속하게 대두한 사회주의사상과 관련하여 수양동우회는 “사회주의자의 이상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민족주의가 설 땅은 남는다”¹⁶⁾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운동의 급격한 성장을 의식하면서도 제국주의지배의 식민지하에서 민족주의 존립의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수양동우회가 민족주의단체의 중심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과 국가단위로 일어났음을 지적하여 조선의 사회주의운동도 민족문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양동우회는 인격의 함양과 단결 훈련을 강조하였다. 조선은 도덕적 결함에 쇠퇴에 이르렀고 지식과 자본의 결핍으로 자립·자조할 능력이 없으며, 渙散決裂과 骨肉相殘으로 互助할 능력이 없다¹⁷⁾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수양동우회는 신문화를 건설하고 이상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민족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곧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동맹의 힘’, 조직적 단결을 통해 ‘德·體·知’의 인격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수양동우회는 교육과 산업의 부진이 조선의 쇠퇴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하는데 이 힘은 바로 산업과 교육의 발전이며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¹⁹⁾ ‘과학의 통속화’를 『東光』을 발간하는 중요 목표로 삼은 것²⁰⁾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인격 함양과 단결훈련이 도덕적 수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되면 그것이 교육과 산업의 실력양성론이라는 것이다.²¹⁾

그러면서 수양동우회는 개인과 사회가 유기체적 관계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개

1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Ⅱ, 한길사(1986), 671~672 쪽

16) 『東光』 제1호(1926.5),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17) 『東光』 제6호(1926.10), 「自助와 互助」.

18) 김윤경, 「인격의 함양」, 『東光』 제 9호(1926.9).

19) 김윤경, 같은 글

20) 『홍사단운동70년사』, 홍사단출판부(1986), 160쪽.

21) 趙培原, 앞의 글, 29쪽.

인 본위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수양동우회가 자본주의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민족의 실력을 도모한다고 할 때, 그 주체가 건전한 인격을 함양한 지식인·자본가 등 조선의 소수 엘리트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現代諸國의 중추계급을 조성하는 자는 一言으로 말하면 식자계급, 유산계급이니 日(일본)도 然하고 英(영국)도 然하고 米(미국)도 然한 것이외다... 조선 민족의 중추계급이라 하려면 적어도 전조선이 민족적 생활에 대한 공통한 이상을 抱하고 이 생활의 조직을 능히 하며, 그 조직의 모든 기관을 족히 분담하여 운전할만한 인격(德과 知와 體)을 備한 개인의 집합이라야 할 것입니다.22)

이광수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개인이 집합’한 ‘중추계급’의 집단으로서 수양동우회를 상정했다. 이러한 사고에 근거하여 수양동우회는 자신들이 건전한 인격을 갖춘 지식인·자본가의 집합체로서 실력양성운동을 통하여 조선의 자본주의 근대화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수양동우회는 회원 개개인의 실력양성에만 치중하였고 대중적 실력양성운동은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27년 초 신간회가 창립될 때 수양동우회 안에서 규약개정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III. 신간회 창립과 수양동우회의 변화

1. 민족주의계열의 분화와 신간회 창립

3·1운동 이후 부르주아민족운동의 분화는 문화운동의 태내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의 중심세력은 동아일보그룹과 천도교, 수양동맹회, 조선청년회연합회 등이었는데, 이들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노선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운동에 참여한 세력의 노선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예컨대 安在鴻

22) 이광수, 「중추계급과 사회」, 『開闢』(1922.7).

과 薛泰熙 등은 ‘토산장려’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국주의 상품시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日貨 배척을 주장하면서 조선인 부르주아에 대한 불신의 바탕 위에 이들의 체계모니를 부인하였다. 대신 토산 장려와 가내공업, 소공업 생산에 기반을 둔 자작자급을 주장함으로써 가내공업과 소공업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다음으로 동아일보그룹 및 이광수, 수양동맹회는 자본주의문명을 수립하고자 하는 실력양성론에 근거한 ‘생산증식’의 논리를 제창하였다. 생산증식의 논리는 민중에 대한 설득과 자신들의 타협성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방어와 공격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논리는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조선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제국주의의 주장을 내걸지 못했고 자신들이 주도한 물산장려운동의 과정에서도 그것이 일화배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급급했다. 요컨대 생산증식의 논리는 일부 조선인 대공업자본을 옹호하는 것이었다.²³⁾

신간회 창립을 주도한 민족주의좌파의 태동은 ‘토산장려’를 주장한 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물산장려운동의 후반기에 주도권을 잡고 민족운동의 통합에 노력하였다. 1926년 7월 8일에 이들은 민족협동전선 조직으로 朝鮮民興會를 발기했다. 조선민흥회는 서울청년회계의 사상단체인 前進會와 조선물산장려회 회원들에 의해 조직되었다.²⁴⁾ 물산장려회는 민족주의우파의 인사들이 사실상 손을 떼고 민족주의좌파의 명제세와 설태희 등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조선민흥회를 발기함으로써 신간회의 결성을 촉진하였다.²⁵⁾

자치론도 양자의 분화를 촉진시켰다. 자치론이 대두하자 문화운동 진영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졌는데, 민족주의좌파의 다수는 자치운동에 반대하였고 민족주의우파는 내부에서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었다.²⁶⁾

1924년 1월 초 이광수는 『東亞日報』에 5회에 걸친 장문의 사설을 발표하여 민

23) 尹海東, 「日帝下 物産獎勵運動의 背景과 그 理念」, 『韓國史論』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92), 353-4 쪽

24) 창립준비위원 중 崔益煥, 權泰錫, 宋乃浩, 李京鎬가 전진회, 明濟世, 金鍾協, 鄭春洸, 吳華英이 물산장려회 회원이었다(李賢周, 「서울派의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신간회(1921~1927)」, 『한국근현대사연구』7, 한울(1997), 182~183 쪽.

25)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1993), 73~94 쪽

26)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1992), 333 쪽

족주의진영이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단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중심단체로 하여금 “당면한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장래 久遠한 정치운동의 기초를 成하게 할 것”²⁷⁾을 제창하였다. 동아일보의 견해로 간주²⁸⁾된 논설의 의도는 조선민족의 정치, 산업, 교육의 권리와 당면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정치결사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의 후원 하에 타협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그룹과 천도교 신파의 최린 등은 자치운동을 목적으로 연정회 조직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민족주의세력의 분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했다. 1925년 4월에는 마침내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고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착수했다. 조선사정조사연구회(1925. 9. 15)와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1925. 11. 28)는 사회주의자들의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민족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해 조직된 것이었다. 전자는 민족주의좌파 주도하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고²⁹⁾ 후자는 하와이의 이승만과 연결된 흥업구락부 회원 등 민족주의우파가 주도하고 좌파가 일부 참여한 형태였다.³⁰⁾ 아직 민족주의세력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25년 11월 『京城日報』사장 副島道正가 동 신문에 「총독정치의 根本義」라는 조선의 자치를 주장하는 논설을 발표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東亞日報』의 송진우, 김성수와 천도교 신파의 최린은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자치운동에 대해 논의했다.³¹⁾ 이때 천도교 신파와 『東亞日報』, 수양동우회, 조선농민사 등이 자치운동의 세력기반으로 간주되었다.

1926년 3월 11일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인 강달영과 천도교 구파의 권동진, 이종린, 오상준, 『朝鮮日報』의 신석우, 안재홍, 연희전문학교 교수 유억겸, 목사 박동완 등 8명이 만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로서 중국 국민당 형태의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여기서 이종린에 의해 천도교 신파와 동아일보

27) 이광수, 「民族的 經綸」, 『東亞日報』1924.1.2.

28) 수양동맹회(뒤의 수양동우회)는 민족운동자들 사이에서 자치운동세력으로 간주되었으나 직접 자치운동에 나선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29) 朱赫, 「朝鮮事情研究會」의 研究,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1), 39쪽.

30)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6(1991), 306쪽.

31) 「民族運動概觀」, 『齋藤實文書』10: 민족운동편, 237쪽.

계의 자치운동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민족주의좌파와 사회주의자들간의 제휴 움직임은 더욱 촉진되었다. 6·10 만세운동으로 조선공산당이 와해됨으로써 양자간의 논의는 일시 중단되었으나 제2차 조선공산당의 국민당 조직노선은 재건된 제3차 조선공산당에 계승되었다. 1926년 11월 15일에는 조선공산당의 표면단체 正友會가 「정우회선언」을 발표하여 사회주의계열의 민족협동전선 결성을 촉진시켰다.

이처럼 1926년 말의 동아일보그룹과 천도교 신파의 자치운동 「정우회선언」 등은 민족주의좌파세력을 자극, 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민족협동전선 결성을 촉진케 함으로써 신간회의 창립을 보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일보그룹과 천도교 구파는 민족주의좌파라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³²⁾

민족주의좌파의 신간회 창립이론은 반자치론 및 사회주의운동과의 협동전선론이었다.³³⁾ 이들은 자치운동을 ‘관계적 타협운동’으로 간주하여 이 운동이 결코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³⁴⁾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주의좌파는 조선총독부의 자치제 실시설에 대해서도 민족운동의 보조를 교란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논파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족좌익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민족 대 민족의 모순구조에서 조선인의 정치적 입장은 민족과 반민족, 타협과 비타협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체제(일제)에 타협적인 세력은 우익, 비타협적인 세력은 좌익으로 간주했다. 민족좌익전선은 일제에 저항적이고 비타협적인 세력간의 협동전선이며 여기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모두가 포함되었다.³⁵⁾

따라서 자치운동의 기반으로 간주된 수양동우회는 민족주의좌파에게 경계의 대상이었다. 수양동우회가 정치운동을 배격하고 개인의 인격향상을 위한 수양단체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운동의 기반으로 여겨진 이유는 이광수같은 핵심 인물이 자치운동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천도교구파의 이종린은 수양동우회에 대해 “누구는 안창호의 股肱(충복, 필자주)인 이광수, 동아일보 및 흥사단장 안창호 등이 제휴를 맺었고 수양단이라든가, 연정회라든가 하는 것이 모두 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³⁶⁾는 견해를 피력한

32) 이현주, 「신간회의 창립과 조직」, 『爭點 韓國近現代史』4, 한국근대사연구소(1994), 58쪽.

33) 박찬승, 「1920년대 중반~1930년대초 민족주의좌파의 신간회운동론」, 『韓國史研究』80(1993), 73쪽.

34) 「朝鮮今後の 政治的 趨勢」, 『朝鮮日報』1926.12.16~19(사설).

35) 이지원, 「일제하 안재홍의 현실인식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 현실』 6(1991), 48쪽.

36) 「第二次朝共黨事件檢舉報告綴」, 『韓國共產主義運動史』(자료편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바 있는데, 이것은 당시 민족주의좌파의 수양동우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수양동우회는 신간회의 창립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2. 규약개정 논쟁

1926년 후반 이후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비정치적 수양단체를 표방한 수양동우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수양동우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국공합작과 국민당의 북벌 등의 영향으로 한국 민족운동자들 사이에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흥사단 원동위원부의 朱耀燮과 金復炯 등은 흥사단이 사회주의단체로 변해야한다고 까지 주장했다.³⁷⁾ 흥사단 미주본부에서는 郭林大와 崔熙松이 실력양성운동은 미온적이므로 흥사단을 혁명단체로 개조하여 정치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³⁸⁾

1927년에 들어서면서 수양동우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1월 16일에 수양동우회 의사회는 ‘會 진흥방침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위원으로 조병옥과 주요한, 이광수를 선임하였다.³⁹⁾ 이때 조병옥은 주요한과 함께 수양동우회를 민족주의자의 거두를 망라한 정치단체로 개조할 것을 제의하였는데,⁴⁰⁾ 이것은 창립 이래 견지해 온 조직적인 정치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었다.

조병옥은 1894년 충남 천안출신으로 미국인 감리교선교사가 설립한 公州 영명 학교에서 공부한 뒤 평양 숭실중학에 편입했는데, 여기서 그는 안창호로 상징되는 평양과 숭실학교를 감싸고 있던 민족주의적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1914년 미국유학 길에 외교독립을 주장하는 이승만과 무장투쟁을 외치는 박용만, 실력양성을 강조하는 안창호를 차례로 만난 그는 “비분과 개탄만을 일삼는 감상적 애국주의론자와 어서 나가서 죽자고 하는 무계획적 급진론자”들과 달리 “민족성격의 혁신 향상

(1980), 120 쪽

37) 「興土團(동우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7735호(1937.10.28), 『도산안창호자료집(I)』, 340쪽

38) 흥사단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쪽

39) 「수양동우회 의사부 회의록」, 증거 제26호, 『도산안창호자료집(II)』, 42~43쪽

40) 「주요한 신문조서(5)」, 京高特秘 제1373호의 9(1937.7.23), 『도산안창호자료집(I)』, 236쪽

이 민족해방과 번영의 기초”임을 강조하는 안창호 노선의 “논리적 정연성과 타당성”에 공감하여 3일간의 문답 끝에 흥사단에 입단했다⁴¹⁾ 조병옥은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흥사단의 단우로 민족운동과 학업을 병행했다.

1925년 6월에 귀국한 조병옥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서 수양동우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조사연구회에서도 활동하면서 1926년 10월에는 연정회 부활계획에도 참여하여 ‘민족주의단체’의 설립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병옥은 1926년 후반 이후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정치운동의 공간에 참여하여 조선인의 당면 이익 쟁취를 위한 일에 몰두하였다.⁴²⁾ 그의 이러한 태도를 참여전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치운동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양동우회의 개조를 주장할 무렵에 발표한 다음의 글은 그의 민족운동론의 일단을 보여준다.

조선경제 내에는 두 민족이 역개를 連하여 생활투쟁을 하게 되매 분배의 불공평한 것이 정치적 의식을 조장케 하며 분배의 경제적 투쟁이 민족운동과 聯化가 된다... 현시 정치기관과 법률제도하에서 우리를 위한 분배정의를 성립할 수 있슬가 의문이나 완전한 정의를 성립한다 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분배의 配割을 상대적으로나 증가케 함이 우리의 경제운동이라 한다.⁴³⁾

경제문제에 국한된 글이지만 조병옥은 합법공간에서 당면 이익의 쟁취를 중시하였다. 식민지하의 합법공간에서 당면 이익 쟁취투쟁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투쟁이 곧 민족운동이 되며 민중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식했다.

연정회 부활계획이 무산된 뒤 조병옥은 수양동우회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단체’를 결성하려 했다. 그는 1927년 1월 16일에 열린 ‘회 진흥방침 연구위원회’에서

41) 李秀日, 『美國 유학시절 維石 趙炳玉의 활동과 ‘近代’의 수용』, 『典農史論』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2001); 趙炳玉, 『나의 回顧錄』, 民敎社(1959), 79쪽.

42) 趙培原, 앞의 글, 35쪽.

43) 조병옥, 「경제문제의 일관」, 『東亞日報』1927.1.16, 18.

수양동우회를 회원의 대부분이 평남지역 출신인 단순한 수양단체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자의 거두를 망라한 대조직으로 변화시켜 직접 정치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옥은 주요한과 연대하여 ① 수양동우회는 금후 각 방면에서 민족주의자를 가입시킬 것, ② 규약에 정치적 색채가 있는 조항을 삽입할 것 ③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획득, 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등의 폐지운동을 감행하고, 소년운동·민중교양·경제협동운동 등의 사업에 참가하며 이를 지도할 것 등에 합의했다.⁴⁴⁾

주요한도 1927년 7월 『東光』에 완곡한 어조로 수양동우회가 개인이 도덕적 수양에 치중해 온 것을 비판하는 한편, 조선사회의 현실을 개조할 것을 주장했다.

수양운동에 있어서 항상 그릇되기 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개인을 너무 확대하고 사회를 너무 적게 보는 것이요, 둘째는 조선의 현실에 적응하기를 잊는 것이다… 사회가 불건전하면 그 사회에 속한 개인도 건전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우리는 먼저 사회를 건전하게 한 후에야 참으로 개인을 건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를 짓는 것이 수양운동의 근본적 해결책 일 것이요, 다만 그 건전한 사회를 짓기 위한 건전한 분투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수양운동의 根本義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여기 있다. 고 식적인 자기 개조에서 사회 개조로! 조선 현실에 적응한 교양과 훈련으로!⁴⁵⁾

그러나 두 사람의 주장은 수양동우회 안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광수는 “실력양성에 의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⁴⁶⁾고 주장하여 수양동우회를 직접적인 정치투쟁 단체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1927년 초 이광수는 건강악화로 수양동우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조병옥과 주요한이 수양동우회의 규약개정 논쟁을 주도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사실 수양동우회 안에서 이광수의 지도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광수의 활동 중단으로 공석이 된 ‘회 진흥 방침 연구위원회’ 위원에는 정인과가 보선되었다 이에 따라 조병옥은 규약개정

44) 『昭和15年 刑拱 17-20』, 『독립운동사자료집』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7), 1291쪽.

45) 주요한, 「수양단체의 나갈 길」, 『東光』제15호(1927.7).

46) 「주요한 신문조서(5)」, 『도산안창호자료집(Ⅰ)』, 236쪽.

논쟁을 주도하면서 신간회에서도 본부 간사로 적극 참여했다. “신간운동은 조선대중을 훈련 조직하여 우리의 권리 증진에 당할 세력을 조성코자 하는 바”⁴⁷⁾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신간회에 참여하는 그의 논리는 수양동우회의 개조론과 1926년 후반의 이른바 합법적 정치운동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3 ‘대독립당’ 구상과 논쟁의 귀결

수양동우회를 정치운동 단체로 전환하려는 데 있어서 큰 난관은 안창호의 반대였다. 안창호는 규약개정 논쟁 등 수양동우회의 동향을 전해듣고 주요한을 상해로 불러들였다. 주요한은 1927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상해에 머물면서 안창호, 車利錫, 趙尙燮 등을 비롯한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 간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안창호는 수양동우회를 정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고 ‘혁명당’은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⁴⁸⁾ 혁명당은 당시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민족유일당운동과 관련하여 안창호가 제창한 ‘大獨立黨’을 말한다.

안창호는 1926년 7월 8일 상해 三一黨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대독립당 조직을 역설했다.

… 그럼으로 우리는 각각 그 정신과 주의와 장단은 불계하고 대혁명당을 조직 하도록 합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각 혐외한 주의와 생각은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長短과 대소를 말하지 말고 단결하여 나갑시다. 전 민족적 운동을 할 배포를 가집시다. 하루바삐 민족적 대혁명을 기성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⁴⁹⁾

혁명당 조직의 제창은 민족유일당 수립운동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안창호는 대혁명당 조직을 제창하면서 “우리의 독립은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참정이나 자치를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사욕을

47) 『東亞日報』1929.9.2.

48) 『昭和15年 刑拱 17-20』,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12, 1291 쪽

49) 광현, 「대혁명당을 조직하자 임시정부를 유지」, 『新韓民報』1926.10.4~28; 이명화, 「자료: 대혁명당을 조직하자 임시정부를 유지」, 『한국근현대사연구』8, 한울(1998), 215~232 쪽

채우기 위하여 일본놈에게 아침을 하며 떨어지는 밥풀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⁵⁰⁾라고 하여 자치론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양동우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자치운동에 가담했던 이광수 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치나 참정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리석음을 말함 이외다”라고 하여 자치나 참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판단보다는,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여운을 남겼다.

안창호는 국내외를 망라하는 통일적 대독립당, 요컨대 통일적 민족운동기관을 건설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동일한 사상과 운동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단결된 조직을 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안창호는 흥사단 미주본부에 대독립당 건설에 조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혁명시대에 처하여 혁명운동을 불가불 해야 되겠고, 혁명운동을 하려면 수양기관 이외에 특별한 혁명기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전민족으로 더불어 통일적 운동을 진행할 때 독립당을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온데, 이것을 달하려 하여도 먼저 기초적 결합체가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선 국내나 원동이나 미주를 물론하고 우리와 의사를 소통하기에 가능한 사람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대단결을 이루고 그 단체의 주동으로 일보를 더 나아가 통일적 대독립당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弟가 금차 만주 여행에도 이것을 위함이오니...(밑줄, 필자. 51)

이에 따르면 수양동우회는 ‘수양기관’인 채로 존속해야 하는 것이었고 정치운동 단체는 ‘통일적 대독립당’의 형태로 별도 조직되어야 했다.

안창호는 수양동우회의 규약개정 논쟁도 대독립당의 구상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수양동우회가 수양기관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정치단체로의 전환에 반대했다. 수양동우회가 ‘수양단’으로 흘러서도 안 되지만, 이와 함께 ‘혁명을 중심으로 하여 투사의 자격을 훈련하는 혁명훈련 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50) 위와 같음.

51) 안창호, 「韓承坤·張利郁兩位先生께」(1926.8.2), 『安島山全書』, 三中堂(1963), 797-798 쪽

는 것이었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옥과 주요한은 계속 수양동우회 중심의 합법적 민족주의단체 건설을 모색하였다. 1927년 12월 17일 두 사람은 ① 수양동우회의 우수분자와 수양동우회 이외의 민족주의자를 결합하여 직접 정치운동 단체를 조직할 것, ② 수양동우회를 개조하고 민족주의운동의 거두를 끌어들이 명실공히 조선운동의 핵심단체가 되도록 할 것, ③ 개조한 수양동우회로써 청년운동·소년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 등을 하여 회의 확대강화를 도모할 것, ④ 개조의 방법으로써 각 방면의 인사를 망라한 대 핵심단체를 조직한 후 수양동우회를 해체하여 수양동우회 회원이 그것에 가입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회 진흥책 초안」을 작성하고⁵³⁾ 의사부 회의에서 약간만을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수양동우회의 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그것의 해체까지 의도한 것⁵⁴⁾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안창호의 노선에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듬해 1월 조병옥은 「회진흥방침 초안」과 규약개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상해로 가서 안창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창호는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大公主義⁵⁵⁾를 약법에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족주의의 거두를 다수 참여시킨 전국적인 대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에 한하여 수양동우회를 확대, 강화할 것을 지시함으로써⁵⁶⁾ 일견 조병옥과 주요한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대공주의는 안창호가 제창한 대독립당의 이념으로 제시된 것이고, 민족통일전선 조직인 신간회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창호의 태도는 조병옥과 주요한 두 사람의 노선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수양동우회 안에서도 조병옥과 주요한의 노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수양동우회의 최대 거점인 평양지방회는 1928년 5월 5일 오정수를 중심으로 “운동의 근본 방침인 인격 훈련에 노력하여 회세의 확

52) 안창호, 「미국에 在留하는 동지 여러분께」(1929), 『도산안창호자료집 I』, 243쪽

53) 「주요한 신문조서(5)」, 京高特秘 제1373호의 9(1937.7.23), 『도산안창호자료집 I』, 237쪽

54) 趙培原, 앞의 글, 43쪽.

55) 朴萬圭, 「島山 安昌浩의 大公主義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論』2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91), 233-234쪽

56) 「昭和15年 刑控 17-20」,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12, 1292쪽.

대,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良策이라고 결의했다 이용설 김윤경 이윤재 등도 조병옥과 주요한의 주장에 맞서 수양동우회의 정치단체로의 전환에 반대하고 개인의 인격 수양과 단결을 강조하였다.⁵⁷⁾

안팎의 반대에 부딪힌 조병옥과 주요한은 한발 물러나 규약개정안을 수정하여 1928년 7월 7일의 제5회 임시의사회에 다시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각시키지 못하여 부결되었다.⁵⁸⁾

안창호의 반대는 보다 완강했다. 1926년 9월 12일 그는 ‘홍사단 원동위원부 임시위원장’ 명의로 이사부장 곽림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당초의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수정한 안의 요령은 우리 단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내려오던 자체의 수양과 민중교양 두 가지 이외에 경제협동 한 가지를 더 가하여 단순히 이 세 가지 강령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혁명당은 따로 조직할 것이라 함이었는데, 본국에 있는 동지들은 일시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 같았으나, 이번에 다시 조건을 붙여 낸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단이 직접 정당의 핵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단으로서 정당에 관한 행동을 하지는 것 같이 되어 버렸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우리의 그 전 주장을 이해시키려 하였으니,...(밑줄 필자⁵⁹⁾)

이에 따라 수양동우회는 토론을 몇 차례 더 가진 뒤 1929년 2월 10일에 가서야 의사회에서 회세 발전대책으로 ① 수정 규약을 기초로 하여 본회를 개선할 것, ② 본회의 목적에 공명하는 인사를 널리 망라하여 특별 입회수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확대된 위원 전체로 하여금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게 할 것 등을 결의했다.

같은 해 9월 5일에 수양동우회는 임시의사회를 열고 투표로서 규약개정과 수양동우회의 명칭개정을 결정하였고 11월 23일 제7회 의사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투표에 참가한 71명 가운데 32명이 규약개정에 찬성하였고 제안된 同友會(20표), 青年朝鮮黨(12표), 新興團(7표), 興友團(2표) 가운데 20표를 얻은 ‘동우회’가 수양동우회의 새 이름이 되었다.⁶⁰⁾ 수양동우회에서 ‘수양’을 삭제하는 한편 회의 목적도

57) 이용설, 「개인수양과 단체생활」, 『眞生』4권3호(1928. 7).

58) 趙培原, 앞의 글, 45쪽.

59) 홍사단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4쪽.

‘신의 있는 조선청년을 규합, 훈련하여 신조선 건설의 역량을 增長한다 로 바꾸고 훈련의 원칙에 ‘사회전반의 이익을 第一義로 하여 희생, 노력하는 대공생활의 실천’과 ‘조선 사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의식을 함양⁶¹⁾한다고 하여 조선의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정치적 독립이나 사회변혁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동우회는 다시 수양단체의 모습으로 침잠해 들어갔고,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은 개별적으로 신간회에 참여했다.

IV. 수양동우회 회원의 신간회 참여

규약개정 운동이 고조되고 안창호의 구상이 드러나면서 일부의 수양동우회 회원들이 신간회 지회의 설립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양동우회의 ‘대주주 인 안창호가 혁명당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조병옥과 주요한 등의 견해가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는 상황 속에서 일부 회원들의 신간회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⁶²⁾

1927년 말 신간회의 기관지로 간주되던 『朝鮮日報』은 사설에서 신간회에 민족적 총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세력을 신간회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⁶³⁾ 이것은 신간회 안의 민족주의좌파세력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세력을 견제하고자 『東亞日報』와 수양동우회를 신간회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수양동우회·동우회 회원 가운데 신간회에 참여한 사람은 13명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앞에서 본대로 수양동우회는 신간회 운동시기에 조직의 진로를 둘러싸고 내

60) 「동우회이사회 회의록」, 증거 제26호, 『도산안창호자료집(II)』, 77쪽

61) 「同友會 約法(1929)」, 증거 제15호, 『同友會事件證據品寫 平壤宣川地方の分』, 국회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이 자료는 앞의 『도산안창호자료집(II)』, 국회도서관(1998), 201쪽에 목록만 들어있고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62) 趙培原, 앞의 글, 43쪽.

63) 『朝鮮日報』1927.12.8.

64) 趙培原, 앞의 글, 17쪽.

분에 휩싸였는데, 논쟁이 장기화되자 수양동우회를 합법적인 정치운동 단체로 전환시키려 했던 일부 회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조병옥이 신간회 본부와 경성지회 간부로 참여했고, 金善株와 金淳民은 각각 신간회 안주지회와 진남포지회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수양동우회를 민족운동을 위한 합법적인 정치단체로 만들려 했고 이것은 신간회의 조직 구상과 본질적 차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간회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신간회와 유사한 경쟁 단체의 결성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⁶⁵⁾

그러나 수양동우회 세력이 조직적으로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지역 회원들이었다. 주요한은 이전에는 평양에서는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신간회 평양지회의 조직을 전후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평양지회 창립의 전 단계인 평양 재만동포옹호동맹에 참여했고 지회설립 이후에도 일시 간부직을 맡았다. 평양 재만동포옹호동맹은 신간회 평양지회가 조직되기 직전인 1927년 12월 12일 창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신간회 평양지회 설립의 사전 정치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⁶⁶⁾

이것은 수양동우회에서 주요한과 조병옥 등에 의한 정치운동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신간회 평양지회의 설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⁶⁷⁾ 그 결과 1927년 12월에 신간회 평양지회가 조직되었고 다음과 같이 다수의 수양동우회계 인사들이 간부로 참여했다.

회장: 曹晩植 부회장 韓根祖
 선진부: 薛命和(부장), 徐正日, 白應賢, 金光洙
 서무부: 金炳淵(부장), 金龜鉉, 金正德
 재정부: 金健亨(부장), 池昌奎, 金景彬
 조직부: 金裕昌(부장)
 조사연구부: 金滢植(부장), 宋錫燦, 李濟鶴
 정치문화부: 林炯日(부장), 吳學洙, 白德洙, 金永基

65) 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韓國史研究』86(1994), 166~167 쪽

66) 『중외일보』1927.12.14.

67) 權三雄, 「1920年代 平壤地域 民族運動 研究」,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5), 39 쪽

대표회원: 朱耀翰, 金性業, 崔允鉦, 廉永華⁶⁸⁾

신간회 평양지회의 결성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양동우회의 몇몇 인사들은 여전히 신간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신민회사건 이래 민족운동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 수양동우회의 대부격인 김동원과 吳胤善, 李德煥, 崔龍勳 등은 신간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에 참여하는 등 실력양성운동에는 계속 관여하면서도 ‘민족적 총역량의 집중’을 표방한 신간회에는 참여를 거부했던 것인데, 이처럼 소극적 실력양성운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들의 자본가로서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⁹⁾

1920년대 후반 이래 평양지역에서 고무노동자 총파업 등 노동쟁의가 잇따르자 신간회 평양지회 집행부의 조만식과 오윤선, 김병연 등 수양동우회계 인사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기보다는 평양상공협회 전무이사였던 김병연처럼 ‘사용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당시 민족운동 전선의 전반적인 좌경화 속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간회 평양지회의 경우는 실력양성론의 입장을 견지했던 수양동우회계 인물들이 창립과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신간회를 적극적인 반일 민족운동의 장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신간회 운동을 온건화·개량화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V. 맺 음 말

(수양)동우회는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에 의해 조직된 흥사단의 국내지부로서 ‘민족성의 개조와 인격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수양단체로 출발했다. 3·1운동 뒤 안창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상해지역은 물론 남북만주와 일본 및 노령 연해주 지역까지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조직했다. 흥사단 원동위원부는 흥사단의 국내조직 결성을 모색, 1922년 초

68) 『동아일보』 1927.12.25; 『조선일보』 1928.1.14.

69) 權三雄, 앞의 글, 40쪽.

서울에서 수양동맹회를 받기했다. 평양에서도 대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을 이념으로 하는 동우구락부를 결성되었는데, 1925년 10월 두 단체는 수양동우회로 통합되었다.

수양동우회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조선 신문화 건설의 기초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양동우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규약상 의무사항의 실천, 월례회를 통한 교양강연에 치중하였다. 개인과 사회가 유기체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개인을 본위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인식했는데, 이러한 인식은 수양동우회가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주체가 건전한 인격을 함양한 지식인과 자본가 등 조선의 소수엘리트, ‘중추계급’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에서 수양동우회는 회원 개인의 실력양성에만 치중하고 대중적 실력양성운동은 도외시켰는데, 이것은 ‘절대독립’의 목표를 내걸고 대중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민중계몽과 민중동원의 방법을 구사했던 신간회와 명백히 다르다.

이런 점에서 1927년 2월, 사회주의운동과의 제휴와 함께 반자치론을 표방하고 등장한 신간회는 수양동우회 내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수양동우회는 회원 몇몇이 조선총독부가 조종하는 자치운동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운동자들 사이에서 자치운동 세력의 유력한 기반으로 간주되던 수양동우회는 신간회 창립을 주도했던 민족주의좌파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신간회 창립과정에서 배제되었다.

1927년 1월, 신간회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수양동우회는 ‘회 진흥방침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병옥과 주요한, 이광수를 위원에 선임했는데, 이 규약개정논쟁의 과정에서 조병옥은 수양동우회를 민족주의자의 거두를 망라한 정치단체로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본부간사를 맡았던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주장은 수양동우회를 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 출범하는 신간회의 주력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병옥의 주장에는 주요한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조병옥의 주장은 조직적인 정치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수양동우회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부한 것으로서 조직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양동우회를 정치운동 단체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안창호의 반대였다. 규약개정논쟁 등 수양동우회의 동향을 전해들은 안창호는 주요한과 조병옥을 상해

로 불러들여 수양동우회를 정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혁명당은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구상은 ‘혁명당’으로서 별도로 국내외를 망라하는 통일적 대독립당, 통일적 민족운동기관을 건설한다는 것이었고 수양동우회는 ‘수양기관’인 체로 존속되어야 했다. 이광수 등 수양동우회 내의 자치운동 동조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안창호는 신간회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관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양동우회는 1929년 말경 ‘수양’을 뺀 ‘동우회’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약법을 개정해 조선의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에 따른 ‘민중대회’ 이후 신간회의 급속한 우경화에 대응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디에도 정치적 독립이나 사회변혁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동우회는 다시 수양단체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1927년 말부터 수양동우회의 규약개정운동이 고조되고 안창호의 구상이 전해지면서 일부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신간회 지회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수양동우회·동우회 회원 가운데 신간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각각 신간회 경성지회와 안주지회, 진남포 지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수양동우회 세력이 조직적으로 신간회 운동에 가담한 것은 주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지역의 회원들로서 이들의 동향을 통해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는 수양동우회의 입장과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1927년 12월에 조직된 신간회 평양지회에는 김병연 등 수양동우회계 인사들 다수가 간부로 참여했다. 주목되는 것은 평양지역 수양동우회의 대부격인 김동원 등 핵심인물들이 불참한 점인데, 이는 이들의 자본가적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후 평양지역 신간회운동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신간회 평양지회처럼, 합법적인 공간에서 실력양성론의 입장을 견지했던 수양동우회계 인물들은 신간회 지회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신간회를 적극적인 반일 민족운동의 場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신간회 운동을 온건화·개량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수양동우회 계열의 신간회 참여는 민족통일전선으로서의 신간회의 외연을 넓혀주었지만, 본질적인 노선상의 한계로 인해 민족운동에서 반체투쟁의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1929년 말에서 1930년 초에 신간회

본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우경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신간회 해소론이 대두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外日報』, 『新韓民報』, 『京城日報』, 『東光』, 『眞生』
 『齋藤實文書』(9·10: 민족운동편) 서울: 고려서림.
 金俊燁·金昌順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자료편Ⅱ)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0.
 趙炳玉, 『나의 回顧錄』서울: 民敎社, 1959.
 주요한 編著, 『安島山全書』서울: 三中堂, 1963.
 興土團史編纂委員會, 『홍사단 50년사』서울: 대성문화사, 1964.
 『홍사단운동 70년사』서울: 홍사단출판부, 1986.
 『독립운동사자료집』(12: 문화투쟁사자료집), 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국회도서관 편, 『抗日獨立運動關係 島山安昌浩資料集』(I · II), 서울: 국회도서관, 1997.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Ⅱ서울: 한길사, 1986.
 서중석, 『한국근현대 민족문제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89.
 朱赫, 「『朝鮮事情研究會』의 研究」,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39쪽.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6, 1991, 306쪽.
 이지원, 「일제하 안재홍의 현실인식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 현실』6, 1991, 48쪽.
 박만규, 「島山 安昌浩의 大公主義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論』26, 서울대 국사학과, 1991, 233~234쪽.
 김상태, 「1920~30년대 동우회·홍업구락부 연구」, 『韓國史論』28, 서울대 국사학과, 1992, 23~29쪽.
 尹海東, 「日帝下 物産獎勵運動의 背景과 그 理念」, 『韓國史論』27, 서울대 국사학과, 1992, 353~354쪽.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2.
 박찬승, 「1920년대 중반~1930년대초 민족주의좌파의 신간회운동론」, 『韓國史研究』80, 1993, 73쪽.
 이균영, 『신간회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3.
 이명화, 「자료: 대혁명당을 조직하자 임시정부를 유지」, 『한국근현대사연구』8, 1998, 215~232쪽.
 이현주, 「신간회의 창립과 조직」, 『爭點 韓國近現代史』4, 한국근현대사연구소, 1994, 58쪽.
 이현주, 「서울파의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신간회(1921~1921)」, 『한국근현대사연구』7, 1997, 182~183쪽.

- 이현주, 「안창호의 국내활동 및 (수양)동우회 자료해제」, 『島山安昌浩全集(13·14)』, 서울 도산안창호전집편찬위원회, 2000.
- 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86, 1994, 166~167 쪽
-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28, 1995.
- 權三雄, 「1920年代 平壤地域 民族運動 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39 쪽
- 趙培原, 「修養同友會·同友會 研究」,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12 쪽
-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서울: 해안, 2001.
- 장규식, 「신간회운동기·基督主義 사회운동론의 대두와 基督信友會」, 『한국근현대사연구』6, 2001.
- 李秀日, 「美國 유학시절 維石 趙炳玉의 활동과·近代의 수용」, 『典農史論』7,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2001.
- 김명구,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사상』,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투고일: 2003. 7. 7

● 심사완료일: 2003. 8. 22

● 주제어(key word): 수양동우회(Suyangdonguhoe), 동우회(Donguhoe), 자치운동(Self-government Movement), 대독립당(Unitary Party), 신간회(Shinganhoe)